

소년체전, 경북 일원서 개최

내일부터 31일까지... 전북, 선수·임원 등 1200여명 참가
총 36개 종목으로 기록·체급·개인단체 등 나눠 진행
전북선수단, 럭비·카누·철인 3종 제외 33개 종목 출전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향한 전북선수단이 힘찬 깃발을 올렸다.

오는 28~31일까지 4일 간 경상북도 일원에서 펼쳐지는 전국소년체전에 전북도는 학생선수 715명과 임원 및 관계자 500여 명 등 약 1,200명이 참가한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를 위해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 전북 대표로 출전할 대표선수를 뽑는 선발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올해 소년체전은 총 36개 종목으로 단체종목과 기록종목, 체급종목, 개인단체 종목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에 전북선수단은 럭비, 카누, 철인 3종 경기를 제외한 33개 종목에 출전한다.

한편, 2021년 대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종목별로 타 대회와 경합해 전국 분산 개최됐다. 이 대회에서 전북선수단은 132개교 1,190명이 참가해 금 22개, 은 22개, 동 35개 등 총 79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전국소년체육대회는 1972년 전국스포츠소년대회로 시작한 이래 학교체육 활성화와 지역 사회 스포츠의 균형발전, 우수선수 조기 발굴·육성을 목적으로 매년 전국 순회 개최된다. 향후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인재들이 발굴되는 주요 산실이기도 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운동부의 전문스포츠 클럽 전환과 더불어 육성종목 훈련비 지원을 통해 학생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육성종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전라북도 대표 학생 선수들이 마음껏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기력 향상 지원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포즈 취하는 지소연

12년만에 국내 무대로 복귀한 지소연(수원 FC 워민)이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청에서 열린 수원 FC 워민 입단 기자회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전주 KCC에 허웅 내준 원주 DB, 유현준 지명

오리온, 현금 12억원 선택

허웅을 전주 KCC로 떠나보낸 프로농구 원주 DB가 보상선수로 유현준(사진)을 택했다.

KBL은 28일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전주 KCC 유니폼을 입은 허웅, 이승현에 대한 원 소속구단 DB, 고양 오리온의 보상 지명권 선택 결과를 공개했다.

DB는 FA 허웅을 영입한 KCC로부터 현재 상무에 임대된 가드 유현준을 보상 선수로 받기로 했다. DB는 또 허웅의 2021~2022시즌 보수 3억3000만원의 50%(1억6500만원)도 함께 받는다.

역시 KCC와 FA 계약을 한 이승현의 원 소속팀 고양 오리온은 보상선수 없이 현금을 받기로 했다. DB는 또 허웅의 2021~2022시즌 보수 6억원의 200%(12억원)을 보상으로 챙긴다.

FA 계약 결과에 따른 보상선수 지명은 보수 서열 30위 이내(만35세 이상 제외) 선수의 이적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태권도진흥재단과 17개 시도 태권도협회가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태권도협력위원회가 지난 25일 발족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오용환 이사장과 태권도 협력위원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태권도협력위원회 출범

17개 시도 태권도협회 추천 위원들로 구성
도장 활성화 자문·의제발굴 기구 역할 수행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용환, 이하 재단)과 17개 시도 태권도협회가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태권도협력위원회가 지난 25일 발족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태권도원 운영센터에서 위촉식과 1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앞으로 위원회는 도장 활성화 등을 위한 자문 및 의제 발굴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재단이 국기 태권도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각 시도 협회와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태권도협력위원회는 경상남도 태권도협회 한규화회장을 위원장으로 전라남도 태권도협회

김창호이사 충청남도 태권도협회 김영근 전무이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각 지역 도장의 어려움을 함께 하기 위한 재단의 적극적 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한규화 위원장은 "태권도진흥재단이 올해 초 진행한 태권도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 광고 등 태권도 발전과 진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태권도인들이 느끼고 있다"며 "각 시도를 대표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과 협력해 일선 사범들에게 더욱 많은 도움과 지

원을 할 수 있도록 태권도진흥재단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용환 이사장은 "태권도협력위원회 위원들은 국기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우리 재단이 앞장서 수행해 나갈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기에 주기 바란다"라며 "위원회를 통해 도장 활성화 등 더 많은 지원방안이 만들어지고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성기자

27~28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소중한 권리 행사하세요

아·태 마스터스 조직위, 유관기관 협력 강화

출입국 편의 위해 실무협의회 열어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송하진)는 28일 해외 참가자들의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인천세관, 김포공항세관, 인천공항검역소,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 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해외 참가선수들의 △비자발급 간소화 △사증발급 수수료 감면 △출입국 전용심사대 운영 △VIP공항의전, 공항내 영접센터 운영 △화물 물품 통관지원 △

참가자들의 검역관련 등에 협의했다.

아태마스터스대회는 대한민국 최초 전북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로, 스포츠 경기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친구들과 함께 관광과 문화 체험을 즐기는 축제의 장이다.

이강오 사무총장은 "해외참가자들의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공항에서 이뤄진다"며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는 전 세계 각지에서 참가하는 만큼 외국 참가선수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유관기관 등과 실무협의를 수시로 개최해 최적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기자

제8회 전국 품바 명인전

6월 3일(금)

전주 풍남문화광장

주최: (사)전북문화진흥원
주관: (사)전북문화진흥원
전주매일신문사
후원: 전북도, 전주시
문의: 063-288-9700
(본사 업무국)

